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성가정을 이루는 가족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 여러분!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은 잘 지내셨겠지요.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며 "성가정 주간"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가정의 성화를 위하여 한 주간을 가족끼리 존중하며 살아봅시다.

제1독서 집회서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는 제 어머니를 편안하게 한다. 얘야, 네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 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네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요양원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 가끔은 자책을 합니다.

제2독서의 바오로 사도는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둘이 마주 보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한 곳을 둘이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다.”, “혼인은 하느님이 맺어 주는 것이니 사람이 풀지 못한다.”, “자녀의 출산은 하느님의 축복이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시부모는 내가 사랑하는 신랑의 부모이기에 공경하고 섬긴다.”, “부인을 사랑하면 처갓집 기둥을 보고도 절을 한다.” 우리는 솔하게 이런 말들을 들어왔고 더 좋은 말들도 많이 많이 듣고 삽니다.

손희송 주교님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사랑은 “① 다른 사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선사하고, 상대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② 사랑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인 동시에 서로를 인정하면서 조화와 화합을 위한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③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참아주고 잘못을 용서함으로써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혼인 예식서를 보면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라는 맹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존경은 둘째 치고 존중이라도 합니까? 존경은 과하고 존중이라도 받아봤으면 하지 않습니까?

복음 말씀은 한 바탕 부모 속을 태운 다음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순종하며 지내고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가정의 구성원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은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정의 일원인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며 가정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송현동 본당 장현준 에프렘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가족과 이웃에게,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사랑 실천에 더 인색한 삶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보면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는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시금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이 성장 할 수 있도록 하며,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과 이 세상에 필요한 은총을 내려주소사 간절히 청하며 이 전례에 참여 합시다.

입당성가 : 114번 ‘나자렛 성가정’

본기도

†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 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집회서 3장 2절-6절.12절-14절

안 내 :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묵 상 :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받고,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쌓는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부모님께도 이러한 데 우리를 내신 하느님 아버지께는 얼마나 큰 상을 받겠습니까!

화 답 송 :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2독서 : 콜로새서 3장 12절-21절

안 내 :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묵 상 : 우리는 하느님의 사람답게 온유와 인내와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마음으로 가족은 물론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 복음 2장 41절-52절

강 론 : '성가정을 이루는 가족'(1-2쪽)

예물준비성가 : 219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영성체성가 : 174번 '사랑의 신비'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답게, 사랑 받는 사람답게 사는 법을
오늘 독서 말씀에서 찾습니다.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하느님이 내신 창조물로서
그 분의 사랑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가정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도, 이 지구도, 온 우주도
하느님 사랑의 섭리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천년 전,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양부이신 요셉 성인이 이루신 성가정에서
흘러나오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따스한 온기가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에 전해져

하느님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읍시다.

하느님의 사랑 받는 사람답게 기쁘고 감사히 이 삶을 살아갑시다.

어린 소년 예수님이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도 고백합시다.

하느님의 집이 바로 나의 집이라고!

공지사항

파견성가 : 101번 '글로리아 높으신 이의 탄생'

※ 공소사목 성금

지보공소	300,000원	김득순님	10,000원
박효진님	30,000원	손양복님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6,810,000원** 입니다.

성금 보내주실 분은 지로 7519989나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해 주세요.



알림

■ '공소사목' 폐간과 『가톨릭 안동』 창간

- 공소사목은 이번 제2355호로써 종료됩니다. 그동안 공소사목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19년 1월 6일부터 교구주보 『가톨릭 안동』이 발간 됩니다.

■ 2019년 신년인사회

- 일시 : 2019년 1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목성동 주교좌 성당

■ 초등부 복사단 연수

- 일시 : 1월 3일(목) 14:00 ~ 4일(금)16: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준비물 : 묵주, 복사복(개인별), 복사복 입고 찍은 세로 사진 1장
- 참가비 : 1인 3만원
- 신청마감 : 12월 14일(금)까지 사목국으로

■ 2019년도 전례 꽃꽂이 모임

- 일시 : 1월 5일(토) 10:30
- 장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 대상 : 본당 꽃꽂이 담당, 전례 꽃꽂이에 관심 있는 분

■ 교구설정 50주년 연합성가대 본당대표 모임

- 대상 : 참가 본당의 성가대 단장, 지휘자, 반주자
- 일시 : 1월 6일(주일) 14:30
- 장소 : 안동교구청

■ 교구설정 50주년 관악단원 모집

- 기간 : 11.25(주일) ~ 2019.3.3(주일)
- 대상 : 관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분, 관악기를 배우고 싶은 분
- 문의 : 김희정 글라라 010-3804-3824

■ 제87차 ME주말

- 일시 : 1월 18일(금) 19:00 ~ 20일(일) 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신청마감 : 1월 13일
- 문의 : 김좌중 M.콜베 010-6580-8408
천연화 베로니카 010-6500-8408

■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 신·구약 성경입문(2년)
- 문의 : 02)944-0819~24/0840~2(이러닝)

■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 일시 : 1월 5일(토) 15:00 ~ 19:00
- 장소 : 서울가톨릭대학 의과학 연구원 대강당 2층
- 참가비 : 1만원
- 문의 : 02-6253-3373, 010-8360-3700
- 주최 :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 성골름반 외방선교회 성소모임

- 일시 : 1월 6일(주일) 10:00
- 장소 : 서울 돈암동 본부
- 문의 : 010-9937-0901

■ 대안학교 산자연중학교 겨울진학캠프

- 일시 : 1월 8일(화) ~ 10일(목)
- 대상 : 진학희망 학생(초6~중1)
- 문의 : 054-338-0530

■ 갈전성당 성전건립 기금마련 판매사업

- 영양토마스 고춧가루 20% 할인 판매
- 영양 토마스 고춧가루 가격
보통맛 1kg 30,000원/매운맛 1kg 31,000원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3813-4405
- 전통방식으로 만든 메주 판매 : 1장 2만원
- 상담 및 주문 : 임점녀 노엘라 010-3251-5052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 교구주보 '가톨릭안동' 광고주 모집

- 교구주보에 광고를 원하시는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 하세요
- 문의 : 사목국 054-858-3114

생명을 품는 가정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환호하는 이 축제의 시기에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이 보여 준 믿음과 사랑은(루카 1,26-38; 마태 1,18-25 참조) 한 줄기 은은한 빛이 되어 고요히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누인 채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를 위로하며 건네는 사랑의 눈길은 그동안 겪었던 수고로움에 대한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성탄의 신비 안에서 우리는 다가올 역경에 용감히 맞서 생명을 선택한 마리아와 요셉을 마주합니다. 아직 이들은 장차 이 아기가 어떤 인물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기로 말미암아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또 앞으로 겪게 될 고단한 미래는 짐작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요셉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생명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품어 안았으며 그 선택은 세상의 구세주를 낳았습니다.

살아 있는 우리 모두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생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약하고 힘없는 생명은 반드시 다른 생명의 보살핌과 희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생명의 유대는 상호 간의 나눔과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생명의 유대가 나눔과 희생이 아닌 착취와 억압으로 변질된다면 이러한 유대는 끊어지고 마침내 고립된 생명은 죽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죽음의 문화는 생명의 유대가 끊어져 가고 있음을 잘 보여 줍니다. 타인의 생명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죽음의 문화는 폭언과 폭행을 넘어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보금자리인 가정 안에까지 깊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은 두렵기까지 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벌어지는 온갖 형태의 폭력은 약자의 생명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느님의 고유한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미물일지라도 의미 없이 존재하는 생명은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 생명은 얼마나 더 귀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그 누구의 소유물도 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이루는 생명의 유대는 더욱 그러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소유하며 자녀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믿음과 사랑으로 보살피며 자녀의 생명이 의미를 찾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가정은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 안는 생명의 보금자리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가운데 완성되며 하느님 구원 사업의 거룩한 여정에 참여합니다. 비단 성탄의 신비 안에서 드러나는 마리아와 요셉에게서뿐만 아니라 혼인의 서약으로 맺어진 모든 부부와 그들이 이루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을 품는 가정은 거룩하고 복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닥칠 온갖 시련에 용감히 맞서 생명을 선택하고 지켜 낸 이들에게 감사와 축복을 전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지켜 낸 마리아와 요셉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인류 구원의 빛을 밝히 비춘 이들이고 하느님의 구원 경륜을 온 세상에 알린 이들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아무리 개인의 삶을 중시하며 이기적으로 흘러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생명을 품어 안는 용감한 이들이 있는 한 하느님의 구원 경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정 성화 주간을 보내면서 온전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유대를 맺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리아와 요셉이 나누었던 감사함과 미안함의 다정한 눈길을 건네주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가정 안에 성탄의 축복과 은총이, 서로의 생명을 품어 안는 가운데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 12월 30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정과 생명 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



살림터 이야기

성탄을 향한 나의 길은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시시때때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길로 곧장 가면 빛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지요.
그냥 옆길로 빠지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찾아오실 줄 알고 말이지요.

주님과 숨바꼭질 하듯 옆길로 빠지는 바람에
주님의 길을 잃어 버렸었지요.
금방 후회하고 다시 주님의 길을 찾습니다.
철없는 아이처럼 말이지요.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을 찾지 않을 때, 주님의 길을 잠시 잃어버립니다.
내가 주인처럼 행동 하다가 말이지요.
식탁에 앉아서 주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의 길을 잠시 잃어버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모르니까 말이지요.

일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잠시 잃어버립니다.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모르니까 말이지요.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잠시 잃어버립니다.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모르니까 말이지요.

하루 분량의 일을 맡겨 주신 주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잠시 잃어버립니다.
건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니까 말이지요.
일을 마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잠시 잃어버립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모르니까 말이지요.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무사하게 오늘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모르니까 말이지요..

좁은 길, 넓은 길, 꼬불꼬불 한길, 비탈길,
내리막길, 오르막길, 모든 길은 은총의 길입니다.
길을 잃어 본 뒤에서야 알았습니다.
먼 길을 떠나 있을 때도 먼 길을 돌아 몸소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니까요.

모든 길마다 기쁨의 길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길 잃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향한 회개의 길목에 주님 먼저와 계심을 알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보시고 오셨다는 것을 말이지요.